위기 속 빛난 자비와 혁신, 미래 향한 등불 밝히다

현대불교신문 선정 2025년 10대 뉴스

올 한 해 불교계는 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화합을 이끌며 사회 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대형 산불과 수해로 천년고찰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고, 종단 행정의 중심인 조계종 청사 화재라는 악재를 맞았으나 위기에 굴하지 않고 신속한 복구와 종무 정상화를 이뤄냈다.

전법의 현장에서는 활력이 넘쳤다. '힙불교'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는 활발한 구호 활동을 펼쳤다.

현대불교신문이 선정한 '2025년 불교계 10대 뉴스'는 위기 앞에서 공동체의 아픔을 위로하고 시대의 요청에 응답해 온 한국불교의 현재를 보여준다. 〈편집자 주〉



올 한 해 불교계는 대형 산불과 수해로 천년고찰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사부대중은 마음을 모아 복구와 치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3월 발생한 산불로 훼손된 고운사 범종.

1. 국민 위로하고 화합 이끌어

우리 사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새해를 맞았다. 불교계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이해를 넘어 국민의 불안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해결과 사회 통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해 종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

불교 각 종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파면 선고 후에는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내 분열과 혼란을 막았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정치인들에게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데 책임을 느끼고 참회해야 한다"고 매섭게 경책했다.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 곁에서 평안과 통합을 발원한 불교계의 이 같은 행보는, 종교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다.

2. 대형 산불·수해 천년고찰을 삼키다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와 운람사 등 6개 전통사찰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고운사는 전체 30동의 건물 가운데 21동이 전소됐고,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가운루와 연수전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운람사 역시 전각과 부속건물 등 7개 동이 모두 불에 타는 아픔을 겪었고, 인근 산림도 광범위하게 훼손됐다.



조계종 청사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화재 발생 6개월 만인 12월 15일 업무동 재입주가 시작됐다.



조계종이 8월 14일 봉행한 '8·15광복 80주년 기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30일 진행한 이주노동자 인권 향상 발원 삼보일배.

여름에는 산청과 충청 지역을 덮친 집중호우로 전국 사찰 47곳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로 토사가 유입돼 대웅전 벽이 무너지고, 요사채·석축 붕괴, 도로 유실, 싱크홀, 전각 침수 등이 발생했다.

3. 화재 악재 딛고 종무 정상화

6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조계종 총무원청사가 피해를 입었다. 국제회의장 인근과 업무동 일부가 훼손됐으나, 현장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면서 인명피해와 문화유산 손실은 없었다. 종단은 화재 직후 인근 시설을 활용해 임시 업무체계를 가동하고, 전담 조직을 꾸려 복구 절차에 착수했다. 피해 조사와 정비 공정을 거쳐 12월 15일부터 업무동 재입주가 시작됐고, 현재 종무 행정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4. 태고종·관음종 '도약'

태고종은 11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를 통해 종단 중흥의 전기를 만들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의 설행과 7개국 스님들이 칠증사로 동참한 이날 법석에는 1만여 명의 태고종도들이 참석해 변화된 종단 위상을 보여줬다.

올해 창종 60주년을 맞은 관음종은 10월 24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AI시대 전법·포교를 선도할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5. '힙불교' 열풍 이어져

힙한 불교 열풍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불교 굿즈는 Z세대들에게 '힙'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지난 4월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도 각종 불교 굿즈들은 구매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체 캐릭터인 '반달이'의 스님 버전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을 출시해 완판 행렬을 이어갔다.

힙불교 열풍에 힘입어 동국대를 중심으로 대학생 전법도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9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 영캠프:주인공'에서 3500여 명이 수계를 받으며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6. 불교사회복지 30년, 국내외 자비 손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30년 전 21개였던 시설은 181개로, 300여 명으로 출발한 복지 종사자는 5600명으로 늘었다. 복지서비스 영역은 아동·청소년·보육·장애인·노인·종합복지 영역으로 확대했다. 최근 선보인 '나는 절로', '청년밥心'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춘 프로그램은 불교계 안팎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제구호에도 앞장섰다. 3월 28일 미얀마에 강진이 발생하자 복지재단은 재난사회복지전문기관 더프라미스와 함께 긴급구호 합동선발대를 파견,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활동을 펼쳤다.

7. 광복 80주년, 불교 독립운동을 기리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교계는 각 종단 및 사찰에서는 기념법회를 열어 순국선열과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분단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자비와 평화의 길을 모색했다. 또 불교 항일운동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와 자료 발굴, 전시회 등을 통해 그동안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독립운동사를 복원했다.

특히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사찰들은 8월 15일 오전 10시에 33번의 타종을 울림으로써 광복의 의미를 새기고 국민화합을 발원했다.

8. 사회적 약자에 귀 기울인 불교계

불교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행보를 이어가며 사회적 역할을 다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규탄하는 연대활동을 적극 펼쳤고, 산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며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정부도 위령재 취지에 호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산불과 지진 등 자연재해를 당한 국내외 구호현장에서 이재민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모연활동과 긴급구호대 투입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9. 우리 시대 선지식 '원적'

올해 한국불교 현대사를 일구고 수행과 전법에 매진한 큰스님들을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겪었다. 조계종 포교원장 등을 역임하며 한평생 전법의 길을 걸었던 조계종 원로의원 금산당 도영 대종사는 11월 20일 원적에 들었다. 조계종 중앙종회 불교광장 회장이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인 만당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은 불교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또 불교 사회복지를 선도하며 한국 비구니 승가를 이끈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 안산 수현 스님과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 등 선지식들이 대중의 곁을 떠났다.

10. 종교인구조사

올해 10~11월에는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종교인구조사'가 이뤄져 불교계가 범종단적 대응에 나섰다. 종교인구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종교지형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교계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에서 불자들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독려하며 정확한 불자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했다. 조사 결과는 2026년 11월 말 공표될 예정이다.

동방불교대학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2025.12.22~2026.02.05

동방불교대학 QR code

모집학과
불교학과
- 2년 과정
- 인터넷 강의

범패학과
- 2년 과정
- 주 1회 출석 강의

자격 및 서류
자격
- 만 18세 이상
- 학력제한 없음
- 서류전형

제출 서류
- 입학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선택발급)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교부
- 대학 홈페이지: http://dongbang.org/

원서 접수 기간
- 2025.12.22~2026.02.05

접수처 (우편,팩스,이메일)
- 팩스: 02-733-0728
- 이메일: dongbang2030@naver.com

입학문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02-745-2030
- 010-3224-3454

합격자 발표
- 2026.02.26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우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1층 TEL: 02-745-2030 FAX: 02-733-0728